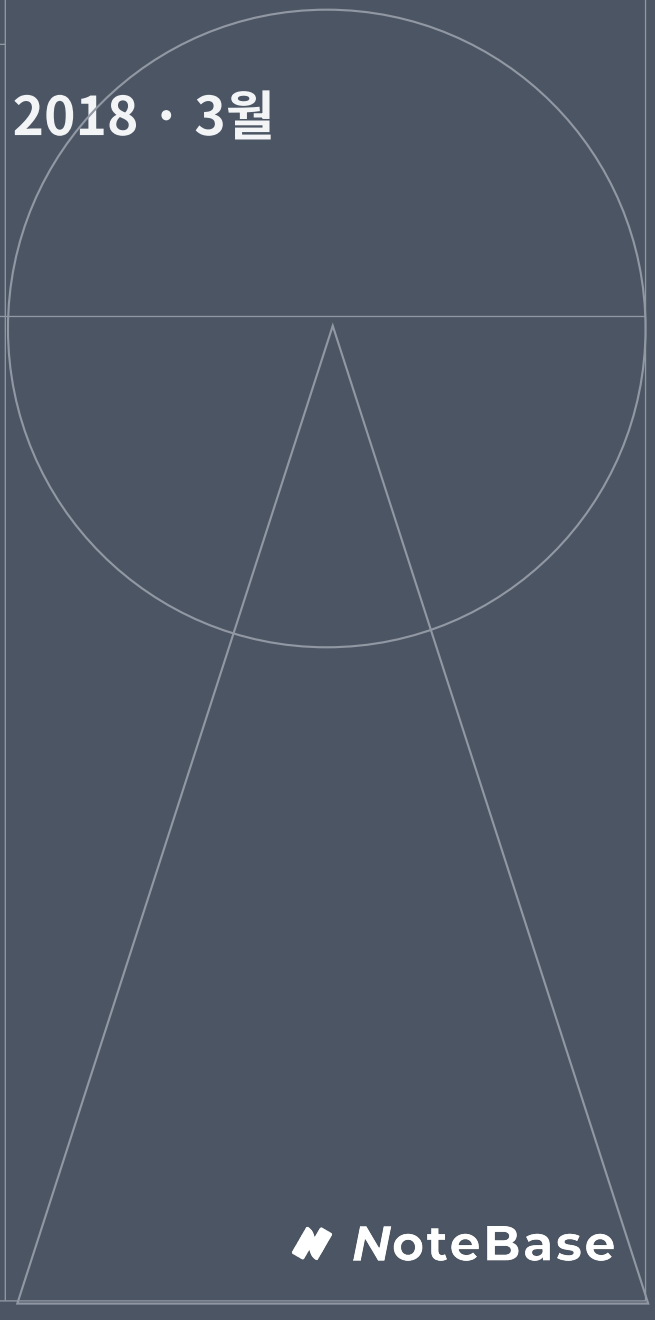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3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3월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3월

문 1. 동화의 방향이 다른 것은?

① 손난로
② 불놀이
③ 찰나
④ 강릉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음운 동화에서 앞 음운이 뒤 음운을 바꾸는 순행동화와 뒤 음운이 앞 음운을 바꾸는 역행동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화는 서로 가까운 음운이 닮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순행동화는 앞 음운이 뒤 음운을 바꾸는 동화이다. 키워드는 '앞소리의 영향이 뒤로 간다'이다.
역행동화는 뒤 음운이 앞 음운을 바꾸는 동화이다. 키워드는 '뒷소리의 영향이 앞으로 온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손난로는 난로에서 ㄴ이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말이다. 즉 ㄴ+ㄹ에서 앞의 ㄴ이 뒤의 ㄹ에 끌려 바뀌므로 역행동화이다. 다른 선지와 방향이 다르다.
② X: 불놀이는 ㄹ+ㄴ에서 뒤의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말이다. '동화의 방향이 다른 예'로 고르면 틀리다. 실제로는 순행동화이다.
③ X: 찰나는 ㄹ+ㄴ에서 뒤의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말이다. '동화의 방향이 다른 예'라는 판단이 틀리다. 실제로는 불놀이, 강릉과 같은 순행동화이다.
④ X: 강릉은 받침 ㅇ의 비음성이 뒤의 ㄹ에 영향을 주어 ㄹ이 ㄴ으로 바뀌는 말이다. 앞 음운이 뒤 음운을 바꾸므로 순행동화이다. '동화의 방향이 다른 예'로 보면 틀리고, 실제로는 ②, ③과 같은 방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과 ㄹ이 만나 모두 ㄹㄹ처럼 들리면 같은 방향의 동화로 묶기 쉽다. 그러나 손난로의 핵심은 뒤의 ㄹ이 앞의 ㄴ을 바꾼다는 점이고, 불놀이·찰나는 앞의 ㄹ이 뒤의 ㄴ을 바꾼다는 점이다. 강릉도 결과만 보지 말고 앞의 비음이 뒤 자음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화 문제는 어느 소리가 먼저 있었는지를 보고, 바뀐 쪽이 앞소리인지 뒷소리인지 따지면 된다. 앞소리가 뒤소리를 바꾸면 순행동화이고, 뒷소리가 앞소리를 바꾸면 역행동화이다.

암기 포인트

불놀이·찰나·강릉은 앞소리가 뒤소리를 바꾸는 순행동화이고, 손난로는 뒤의 ㄹ이 앞의 ㄴ을 끌어당기는 역행동화이다.

NoteBase

문 2.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②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③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④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상대 높임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어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주어가 높임 대상일 때 서술어에 '-시-'를 붙이거나 '계시다' 같은 높임말을 쓴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사람과 관련된 가족, 신체, 소유물 등을 주어로 세워 그 사람을 우회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이때 관련 대상은 높임의 매개가 되고, 서술어의 '-시-'는 그 관련 인물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을 높이는 방식으로, 종결 표현에서 드러난다.

선지별 해설

① X: '따님'은 '부장님'과 관련된 가족을 내세워 부장님을 높이는 간접 높임 맥락이다. 그런데 '계시다'는 주어인 '따님' 자체를 직접 높이는 말이므로 간접 높임과 어울리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계신가요'이고, 올바르게는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있으신가요?'이다.
② O: '담임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직접 높이면서 형용사 '크다'에 '-시-'를 붙인 직접 높임이다. 주어인 선생님 자체가 높임 대상이므로 자연스럽다.
③ O: '지팡이'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소유물이고, '멋지세요'는 그 소유물을 매개로 할아버지를 높이는 간접 높임으로 볼 수 있다. 시험 문법에서는 높임 대상의 소유물에도 '-시-'를 써 간접 높임을 실현한 예로 처리한다.
④ O: 묻는 대상은 생략된 주어 '선생님'이고, '있으세요'는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다. 종결형도 공손하여 상대 높임까지 함께 드러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따님'이 이미 높임말이므로 전체가 자연스럽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따님'으로 부장님을 간접 높였는데, 서술어를 '계시다'로 쓰면 딸을 직접 높이는 구조로 바뀐다. 간접 높임 자리에서는 '있다'에 '-시-'를 붙인 '있으시다'가 기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실제로 높이는 대상이 주어 자신인지, 주어와 관련된 다른 인물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주어 자체를 높이면 직접 높임이고, 가족·신체·소유물 같은 관련 대상을 내세워 높이면 간접 높임이다. 간접 높임에서는 높임의 초점이 관련 인물에 있으므로 직접 높임용 특수 어휘를 섞지 않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직접 높임은 주어를 바로 높이고, 간접 높임은 가족·신체·소유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높인다. '따님'은 간접 높임, '계시다'는 직접 높임이라는 축을 같이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내용 중 밑줄 친 '쓰다'의 쓰임이 다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보기>
ㄱ.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ㄴ.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ㄷ. 공원묘지에 묘를 쓰다.
ㄹ. 그는 아무에게나 반말을 쓴다.
ㅁ. 입맛이 써서 맛있는 게 없다.
ㅂ.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다.

① ㄱ - ㄷ
② ㄴ - ㅁ
③ ㄷ - ㄹ
④ ㄹ - ㅂ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 관련을 유지한 채 뜻이 넓어진 다의어인지, 전혀 다른 뜻의 동음이의어인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관련된 뜻이 여러 갈래로 확장된 말이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아도 뜻 사이의 관련이 거의 없는 별개의 말이다.
이 문항에서 ㄹ의 '반말을 쓰다'와 ㅂ의 '시간을 쓰다'는 모두 어떤 대상이나 수단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의 '붓글씨를 쓰다'는 글자를 적는다는 뜻이고, ㄷ의 '묘를 쓰다'는 무덤을 만들거나 정한다는 뜻이다. 두 뜻은 의미가 이어지지 않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서로 다른 표제어로 오르는 별개의 말이다. 틀린 표현은 '다의 관계'이며, 올바르게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2번 X: ㄴ의 '누명을 쓰다'는 억울한 책임이나 허물을 뒤집어쓴다는 뜻이고, ㅁ의 '입맛이 쓰다'는 맛이 쓰다는 뜻이다. 하나는 비유적 부담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미각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여서 품사부터 다르다. 틀린 표현은 '다의 관계'이며, 올바르게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3번 X: ㄷ의 '묘를 쓰다'와 ㄹ의 '반말을 쓴다'는 각각 무덤을 만들거나 정하는 뜻, 말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중심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다의 관계'이며, 올바르게는 의미상 관련이 없는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4번 O: ㄹ의 '반말을 쓴다'는 말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ㅂ의 '시간을 많이 썼다'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들이거나 사용했다는 뜻이다. 둘 다 '어떤 대상이나 수단을 쓰다'라는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갈라져 나온 뜻이므로 다의 관계가 맞다.

오답 포인트

표면적으로 같은 '쓰다'가 반복되므로 모두 다의어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맛이 쓰다'처럼 감각 성질을 나타내는 뜻과 '묘를 쓰다'처럼 별개의 어휘로 굳은 뜻은 '사용하다'나 '적다'와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형태의 단어가 나오면 먼저 중심 뜻을 잡고, 다른 문맥의 뜻이 그 중심 뜻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지 확인한다. '사용하다', '적다', '뒤집어쓰다'처럼 연결 고리가 보이면 다의어이고, 연결 고리가 끊기면 동음이의어로 본다.

암기 포인트

'반말을 쓰다'와 '시간을 쓰다'는 모두 '사용하다'로 묶이므로 다의어이다.

NoteBase

문 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① 구체적 시공간을 제시하여 역사적 배경을 환기한다.
②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 막히던 상황이다.
③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④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에 드러난 역사적 배경과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제시문의 표현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1947년 봄 심야에 황해도 해주 바다의 경계선 용당포라는 구체적 시공간이 제시된다.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젓는 모습에서 경계 감시를 피해 은밀히 이동하는 긴장된 상황이 드러난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은 분단 현실이 낳은 비극을 바다가 품은 장면을 압축한다.

핵심 개념

이 시는 해방 직후 분단기의 역사적 비극을 구체적 장소와 사건으로 환기하는 작품이다.
'수심'은 물의 깊이와 마음속 근심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중의적 시어이다.

적용 기준

선지가 맞는지 판단할 때에는 제시문에 실제로 드러난 시공간, 행동의 분위기, 시어의 중의성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시문에 없는 행위 주체를 단정하거나 비극의 원인을 특정하면 빗나간 해석이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처럼 구체적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여 해방 직후 분단 상황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선명하게 환기한다.
2번 O: 경계선에서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젓는 모습은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 몰래 이동해야 했던 숨 막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3번 X: 제시문은 영아를 삼킨 주체를 '바다'로 제시할 뿐 보초를 서던 군인이 아이의 목숨을 앗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며, 올바르게는 분단 경계선을 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다가 영아를 삼킨 비극이 암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4번 O: '수심'은 바다의 깊이라는 뜻과 함께 사건을 떠올릴 때 사라지지 않는 근심과 비애를 함께 뜻하여 비극의 여운을 심화한다.

오답 포인트

3번은 경계선, 심야, 영아의 죽음이라는 단서 때문에 군인의 직접 살해를 쉽게 덧씌우게 만든다. 그러나 시는 구체적 가해자를 말하지 않고 분단 상황 자체가 낳은 비극과 오래 남는 상처를 압축하여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대시 해석 문제는 먼저 구체적 시공간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만드는지 본다. 그다음 행동의 분위기와 핵심 시어의 중의성을 확인하고, 시에 없는 인물의 행위나 원인을 선지에서 임의로 보태지 않았는지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 시공간은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고, 중의적 시어는 사건의 사실과 정서를 함께 품는다.

NoteBase

문 5.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

<보기>
오늘날의 상황을 '소비의 위기'라 부른다.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위태롭다.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 우리가 소비를 덜 할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토대도 허물어진다. 절약하는 것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수입이 장기적으로 불안해지는 추세와 함께 이른바 마비 현상이라 부르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불안과 욕구라는 양극단 중 어느 한쪽도 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적인 경련과 리듬 상실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모든 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는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몇 년 안에 달라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 다비트 보스하르트, 『소비의 미래』

① 철수 -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디딤돌이야.
② 영희 - 오늘날은 소비의 위기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
③ 영수 -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④ 순희 -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이 소비를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본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글에서 소비는 개인의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토대이다. 판단의 기준은 소비 자체를 부정하는지, 아니면 소비의 위축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는지에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소비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한다. 소비를 덜 할수록 민주주의적 토대가 허물어진다고 보므로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이해가 맞다.
② O: 글은 오늘날을 '소비의 위기'라고 부르며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끊임없는 소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는 제시문의 관점과 맞는다.
③ O: 글은 소비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수반한다고 말한다. 소비와 민주주의 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이해가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이다. 제시문은 오히려 대량 소비가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회가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소비의 위축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일상적으로 떠올리기 쉬운 '대량 소비 비판'의 상식을 끌어와 제시문의 방향을 뒤집은 선지이다. 이 글은 소비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소비의 감소를 위기로 본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고르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평문에서 필자의 핵심 판단이 무엇인지 먼저 잡아야 한다. 이 글처럼 '소비 감소=민주주의 약화'라는 인과가 분명하면, 선지를 볼 때 소비를 부정적으로 단정한 표현은 필자의 관점과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이 글의 축은 '소비 감소는 민주주의 위기, 소비 유지는 민주주의 유지'이다.

NoteBase

문 6. '살짝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같은 것은?

① 덮밥
② 얼룩소
③ 딱딱새
④ 섞어찌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성 방식 가운데 부사+명사 결합을 다른 합성어 구성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살짝곰보: 부사 '살짝'이 명사 '곰보' 앞에 바로 온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딱딱새: 부사 '딱딱'이 명사 '새' 앞에 바로 온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덮밥: 용언 어간 '덮-'과 명사 '밥'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얼룩소: 이 문항에서는 명사 '얼룩'+명사 '소'의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섞어찌개: 용언 활용형 '섞어'와 명사 '찌개'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덮밥'은 '덮-'+'밥'의 결합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기는 하지만, '살짝곰보'처럼 부사가 명사 앞에 온 구조가 아니다. 틀린 부분은 같은 구성 방식으로 보는 점이며, 실제로는 용언 어간+명사의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X. '얼룩소'는 이 문항의 기준에서 '얼룩'과 '소'가 결합한 명사+명사 합성어로 본다. 틀린 부분은 부사+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는 점이며, 실제로는 통사적 합성어로 처리한다.
③ O. '딱딱새'는 부사 '딱딱'과 명사 '새'가 결합한 말이므로 '살짝곰보'와 같은 부사+명사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X. '섞어찌개'는 '섞어'와 '찌개'의 결합으로, 앞말에 활용형이 드러난 통사적 결합이다. 틀린 부분은 부사+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는 점이며, 실제로는 용언 활용형+명사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아닌지'만 보고 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비통사 여부가 아니라 구성 방식 자체를 묻기 때문에, '부사+명사'인지 '용언 어간+명사'인지까지 한 단계 더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어를 형태소 단위로 끊고 앞말의 품사를 확인한다. 앞말이 부사이고 뒷말이 명사이면 '살짝곰보'형이고, 앞말이 용언 어간이면 '덮밥'형, 활용형이 드러나면 '섞어찌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살짝곰보=부사+명사, 딱딱새=부사+명사, 덮밥=어간+명사이다.

NoteBase

문 7. <보기> 중 음운변동으로 음운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발전
ㄴ. 국화
ㄷ. 숲잎
ㄹ. 독립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음운 변동 가운데 음운의 종류만 바뀌는 교체와, 음운의 수가 실제로 늘거나 줄어드는 첨가·탈락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음운의 수 변화는 발음 과정에서 어떤 음운이 탈락하거나 두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거나 새 음운이 첨가되어 소리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교체는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보통 음운의 종류만 달라지고 수는 유지된다.
ㄴ 국화는 [구콰]로 발음되는데, 받침 ㄱ과 뒤의 ㅎ이 하나의 ㅋ으로 합쳐지는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나 음운 수가 하나 줄어든다.
ㄷ 솔잎은 ㄴ이 첨가되어 [솔닙]이 된 뒤 유음화로 [솔립]이 되는데, ㄴ 첨가로 음운 수가 늘어난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ㄴ이라고 보았으나 ㄱ 발전은 [발쩐]으로 된소리되기만 일어나 음운 수가 그대로이다. ㄴ 국화만 해당하므로 옳게는 ㄱ 대신 ㄷ이 들어가야 한다.
2번 X: ㄱ 발전은 음운 수 변화가 없고, ㄹ 독립도 [동닙]으로 발음될 때 ㄹ이 ㄴ으로,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교체)만 일어날 뿐 음운 수는 그대로이다. 옳게는 ㄱ, ㄹ이 아니라 ㄴ, ㄷ이다.
3번 O: ㄴ 국화는 [구콰]가 되어 ㄱ과 ㅎ이 ㅋ으로 합쳐지는 자음 축약으로 음운 수가 줄고, ㄷ 솔잎은 [솔닙]을 거쳐 [솔립]이 되며 ㄴ 첨가로 음운 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음운 수 변화가 있는 단어만 묶은 선택지는 3번이다.
4번 X: ㄷ 솔잎은 맞지만 ㄹ 독립은 틀리다. 독립은 [동닙]으로 소리 바뀜(교체)은 있어도 음운 수 증감은 없으므로, 옳게는 ㄷ, ㄹ이 아니라 ㄴ, 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된소리되기나 비음화처럼 소리의 성질만 바뀌는 교체를 음운 수 변화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발전과 독립이 바로 그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발음을 적고, 그다음 음운이 없어졌는지 또는 새로 생겼는지를 본다. 탈락이나 첨가가 있으면 음운 수 변화가 있고, 교체만 있으면 음운 수 변화가 없다.

암기 포인트

교체는 종류 변화, 첨가·탈락은 수 변화이다.

NoteBase

문 8.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리: Sin-li

② 일직면: Iljik-myeon

③ 사직로: Sajik-ro

④ 진량읍: Jillyang-eup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에서 음운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와 행정 구역 단위처럼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핵심 개념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 구역 단위인 읍·면·리 앞에는 붙임표를 넣고, 그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단위명 앞부분 자체에서 일어나는 ㄴㄹ 동화 같은 음운 변화는 반영할 수 있으며, 도로명 '로'는 '-ro'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행정 구역 단위 '리'는 붙임표를 넣어 '-ri'로 적고, 이때 초성 ㄹ은 모음 앞이므로 'r'로 적는다. 또한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아 '신'도 원형대로 'Sin'으로 적는다. 틀린 부분은 'li'이며, 올바르게는 'Sin-ri'이다.
② O. 행정 구역 단위 '면'은 '-myeon'으로 적으므로 '일직면'은 'Iljik-myeon'이 맞다. '일직' 부분도 원형대로 적는다.
③ O. 도로명 '로'는 붙임표를 써 '-ro'로 적으므로 '사직로'는 'Sajik-ro'가 맞다. 발음상 동화가 나더라도 표기는 원형을 유지한다.
④ O. '진량'은 [질량]으로 소리 나는데, 이 ㄴㄹ 유음화가 단위명 앞부분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이므로 표기에 반영되어 'Jillyang'으로 적고, 행정 구역 단위 '읍'은 '-eup'으로 적으므로 'Jillyang-eup'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④가 가장 잘 헷갈린다. 둘 다 ㄴ과 ㄹ이 만나 소리가 바뀌지만, ①의 '리'는 행정 구역 단위라서 음운 변화를 적지 않고, ④의 '진량'은 단위명 앞부분 자체의 발음 변화라서 반영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뒤 요소가 읍·면·리 같은 행정 구역 단위인지 확인한다. 행정 구역 단위이면 붙임표를 쓰고 그 경계의 음운 변화는 적지 않는다. 그다음 단위명 앞부분 내부에서 일어난 동화인지 따져 내부 변화만 반영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행정 구역 단위는 원형+붙임표, 낱말 내부 동화는 발음 반영이다.

NoteBase

문 9. <보기> 속 화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다갈색 바지에 흰 면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마침 도착한 버스에 탔다. 그게 다였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떠민 것도 아닌데……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툭툭 털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②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
③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④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건 직후의 행동과 독백을 근거로, 화자가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화자는 옆에 있던 노인이 쓰러질 때 그를 피했고, 노인은 화자가 있던 자리 쪽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 화자는 거의 동시에 도착한 버스를 그냥 타고 떠났다.
- 이후 화자는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때린 것도 아니다', '누군가 조치했을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스스로를 해명한다.

핵심 개념

죄책감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생기는 불편하고 괴로운 심리이다.
겉으로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면, 그 일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 된다.

NoteBase

적용 기준

심리 추론에서는 말의 표면보다 말이 반복되는 방향을 본다. 이 글의 화자는 사건을 잊고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인가',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라는 식의 자기 해명을 되풀이하며 죄책감을 눌러 보려는 상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는 개인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일반적 신념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런 신념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노인을 두고 온 일을 계속 해명한다. 올바르게는 '자기 보존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이다.
② X: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는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지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화자는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서둘러 선을 긋는다. 올바르게는 '책임을 규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는 자기 해명이다'이다.
③ O: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는 사건이 마음에 걸려 계속 변명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내 탓은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리로 볼 수 있다.
④ X: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는 미래의 자기 상황에 대한 기대이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은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라고 현재의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추정일 뿐이다. 올바르게는 '남이 나를 구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이 노인을 도왔을 것이라고 넘겨짚으며 마음의 부담을 덜려는 태도'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화자의 겉말만 따라가면 틀리기 쉽다.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표면 진술만 보면 무관심이나 자기합리화만 보이지만, 같은 변명을 거듭하는 독백 자체가 이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심리 추론 문항에서는 인물이 직접 선언한 말보다 반복되는 독백, 변명, 부정의 방향을 본다. 책임이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 오히려 그 일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강한 부정과 반복된 변명은 숨은 죄책감의 신호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의 향가 작품이 아닌 것은?

<보기>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하심을 알 것입니다.
- 충담 -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① 원왕생가
② 처용가
③ 찬기파랑가
④ 혜성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 작품인 안민가의 형식이 10구체 향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각 작품의 향가 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0구체 향가는 향가의 완성된 정형으로, 대체로 3단 구성과 낙구를 갖추는 형식이다.
8구체 향가는 10구체처럼 완결된 낙구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 중간 형식이다.
보기의 작품은 충담사의 안민가로 10구체 향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왕생가는 10구체 향가이므로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이다.
② X: 처용가는 8구체 향가이므로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같은 형식의 향가 작품'에 포함시킨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처용가는 8구체 향가이므로 보기와 형식이 다르다'이다.
③ O: 찬기파랑가는 10구체 향가이므로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이다.
④ O: 혜성가는 10구체 향가이므로 보기의 작품과 같은 형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처용가는 대표작으로 자주 제시되어 향가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10구체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작품명만 보고 향가 여부만 판단하면 틀리고, 4구체·8구체·10구체 가운데 어느 형식인지를 끝까지 구분해야 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향가 형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기준 작품의 형식을 확정한 뒤, 각 선택지를 작품명과 형식으로 바로 대응해 판단한다. 특히 처용가는 향가이기는 하지만 10구체가 아니라 8구체라는 점을 따로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안민가·원왕생가·찬기파랑가·혜성가는 10구체, 처용가는 8구체이다.

NoteBase

문 11.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 쓰였다.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ㅿ'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ㅁ. 'ㅇ'을 순음 아래 이어쓰면 순경음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세국어 표기법의 핵심 사실인 8종성법, 동국정운식 한자음 병기 위치, 종성부용초성, 순경음, 사잇소리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8종성법은 종성에 원칙적으로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만 쓰는 방식이다.
종성부용초성은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받침에도 그대로 돌려쓰는 원리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한자를 왼쪽에 두고 그 오른쪽에 한자음을 다는 방식이지, 한자 아래 병기가 아니다.
사잇소리는 ㅅ, ㅿ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른 자음도 나타난다.
순경음은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 쓴 글자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8종성법 설명으로 옳다.
ㄴ은 틀리다. 사잇소리에 ㅅ, ㆆ 외의 자음도 쓰였으므로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가 잘못이다. 올바르게는 '사잇소리에는 ㅅ, ㆆ 외의 자음도 나타날 수 있다'이다.
ㄷ은 틀리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한자 아래에 적는 것이 아니라 한자 옆에 병기한다. 올바르게는 '한자를 왼쪽에 두고 그 오른쪽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병기했다'이다.
따라서 ①의 묶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X
ㄱ은 옳다.
ㄷ이 틀리므로 이 묶음은 틀리다. 잘못된 부분은 '한자 아래'이며, 올바른 설명은 '한자 오른쪽에 병기했다'이다.
ㄹ은 옳다. 중세국어는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되 종성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재사용했다.
ㄷ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②는 오답이다.

③ X
ㄴ이 틀리다. 사잇소리 표기를 ㅅ, ㆆ 두 글자로만 한정할 수 없다.
ㄹ은 옳다.
ㅁ은 옳다.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 쓴 글자가 순경음이다.
ㄴ이 틀리므로 ③은 오답이다.

④ O
ㄱ은 8종성법 설명으로 옳다.
ㄹ은 종성부용초성의 설명으로 옳다.
ㅁ은 순경음 설명으로 옳다.
세 항목이 모두 참이므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ㄷ의 '한자 아래'와 ㄹ의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를 섞어 기억하면 쉽게 흔들린다. 병기 위치는 옆이고, 글자 재사용은 종성부용초성이다.
ㄴ도 '사잇소리=사이시옷'만 떠올리면 맞아 보이지만, 중세국어의 사잇소리 표기는 그보다 넓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세국어 표기 문제는 먼저 8종성법, 종성부용초성, 순경음처럼 고정적으로 외우는 원리를 확인하고, 그다음 '아래 병기'처럼 위치를 바꿔 놓은 표현을 걸러 내면 된다.
선지가 묶음형이면 각 진술의 참거짓을 먼저 확정한 뒤 조합을 찾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암기 포인트

8종성법은 여덟 받침, 종성은 초성 재사용, 순음+ㅇ은 순경음,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한자 옆 병기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임이여,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이제 님을 어이 할까나

(나) 生死 길흔/이에 이샤매 머믓그리고/나는 가ᄂᆞ다 말ᄉᆞ도/
몯다 니르고 가ᄂᆞ닛고/어느 ᄀᆞ술 이른 ᄇᆞᄅᆞ매/이에 뎌에
ᄠᅳ러딜 닙곤/ᄒᆞ든 가지라 나고/가논 곧 모ᄃᆞ론뎌/아야 彌
陀刹아 맛보올 나/道 닷가 기드리고다

①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

② 임과의 사별을 노래했다.

③ 승화, 초월 양상이 보인다.

④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와 (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임의 죽음에 대한 비탄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나)는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현세의 이별에서 내세의 재회를 기원하는 방향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작품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앞 구절에서 뒤 구절로 넘어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과 정서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임이 물을 건너려 함 → 물에 빠져 죽음 → 화자의 탄식 순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나)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인식 → 낙엽의 비유를 통한 무상감 → 미타 세계에서의 재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임과의 사별"이다. (가)는 임과의 사별을 노래한 것이 맞지만, (나)는 임이 아니라 죽은 누이를 추모한 작품이다. 올바르게는 "사별의 슬픔을 노래했다" 정도로 고쳐야 공통점이 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승화, 초월 양상이 보인다"를 공통점으로 잡은 점이다. (나)는 미타 세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종교적 초월 의식이 드러나지만, (가)는 임의 죽음을 비탄하는 정서에 머문다. 올바르게는 "승화, 초월 양상은 (나)에 두드러지고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인다"이다. (가)는 "이제 님을 어이 할까나"에서 절박한 탄식이 직접 드러난다. (나)도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이 바탕에 있다. 올바르게는 "이별의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낸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두 작품 모두 사별을 다루므로 맞아 보이지만, (나)의 대상이 임이 아니라 누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③은 (나)의 불교적 초월 의식을 보고 두 작품 전체의 공통점으로 확대하면 틀리기 쉽다. ④는 (나)의 종결부가 차분해 보여도 두 작품 모두 기본 정서는 담담한 수용이 아니라 상실의 슬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점 문제에서는 각 작품에 모두 해당하는 요소만 남겨야 한다. 한 작품에만 나타나는 대상, 종교성, 정서 태도는 공통점이 될 수 없고, 시상의 전개 방식처럼 두 작품에 함께 확인되는 요소를 선택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가)는 비극적 사건 전개, (나)는 애도에서 재회 기원으로의 전개이므로 공통점은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이다.

NoteBase

문 13.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우리가 그 본성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을 불변의 것으로 고정화할 때, 우리는 옛날의 중국 여자의 전족처럼 살아 있는 것의 성장을 왜곡화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고사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① 課程 - 纏足 - 矮曲 - 苦死
② 過程 - 纏足 - 歪曲 - 枯死
③ 過程 - ☒足 - 矮曲 - 枯死
④ 課程 - ☒足 - 歪曲 - 苦死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 표기를 고르는 문제이며, 동음이의 한자어와 관용적으로 굳어진 어휘의 정확한 표기를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과정(過程)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차례나 경과를 뜻한다.
과정(課程)은 교육의 절차나 교과 과정을 뜻한다.
전족(纏足)은 중국의 옛 풍습으로, 여자의 발이 자라지 못하게 천으로 감아 묶는 일을 뜻한다.
왜곡(歪曲)은 사실이나 형태를 비뚤어지게 하거나 그릇되게 만드는 일을 뜻한다.
고사(枯死)는 식물이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 말라 죽는 상태를 뜻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X
과정을 課程으로 적은 것이 틀리다. 문맥은 '변화의 과정'이므로 교육 과정이 아니라 경과를 뜻하는 過程이어야 한다.
왜곡화를 矮曲으로 적은 것도 틀리다. '왜곡'은 비뚤게 만든다는 뜻이므로 歪曲이 맞다.
고사를 苦死로 적은 것도 틀리다. 여기서는 괴롭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라 죽게 만든다는 뜻이므로 枯死가 맞다.
틀린 표현은 課程, 矮曲, 苦死이다. 올바르게는 過程, 歪曲, 枯死이다.

② O
過程은 변화가 진행되는 경과라는 뜻으로 문맥에 맞다.
纏足은 중국 여자의 발을 묶던 풍습을 뜻하는 말로 맞다.
歪曲은 살아 있는 것의 성장을 비뚤어지게 만든다는 뜻에 맞는 표기이다.
枯死는 결국 그것을 말라 죽게 만든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③ X
전족을 塡足으로 적은 것이 틀리다. 전족은 발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 발을 천으로 감아 묶는 풍습이므로 纏足이어야 한다.
왜곡화를 矮曲으로 적은 것도 틀리다. 왜곡은 歪曲으로 적는다.
틀린 표현은 塡足, 矮曲이다. 올바르게는 纏足, 歪曲이다.

④ X
과정을 課程으로 적은 것이 틀리다. 문맥은 경과를 뜻하므로 過程이어야 한다.
전족을 塡足으로 적은 것도 틀리다. 전족은 纏足이 맞다.
고사를 苦死로 적은 것도 틀리다. 문맥은 말라 죽게 함이므로 枯死가 맞다.
틀린 표현은 課程, 塡足, 苦死이다. 올바르게는 過程, 纏足, 枯死이다.

오답 포인트

과정은 소리가 같아 課程과 過程을 자주 혼동하고, 전족은 뜻을 모르고 음만 따라 쓰면 塡足처럼 잘못 연결하기 쉽다. 또 왜곡과 고사는 일상에서 한자 표기를 자주 확인하지 않아 歪曲, 枯死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맥에서 먼저 뜻을 확정한 뒤 그 뜻에 맞는 한자를 연결하면 된다. 진행의 경과이면 過程, 교육 내용이면 課程으로 나누고, 전족처럼 문화어로 굳은 말은 관용 표기를 따지며, 왜곡·고사처럼 의미가 분명한 말은 뜻풀이에 맞는 한자를 고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변화의 과정은 過程, 중국의 전족은 纏足, 사실을 비트는 왜곡은 歪曲, 말라 죽는 고사는 枯死이다.

NoteBase

문 14. 고유어에 대한 풀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바람: 가을바람의 준말

② 두름: 조기 따위의 물고기 열 마리를 짚으로 엮은 것

③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④ 지청구: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유어의 정확한 뜻풀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며, 특히 수량 단위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의 핵심 뜻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개념

갈바람은 가을바람의 준말이다.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트레바리는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 또는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청구는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을 이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갈바람은 '가을바람'의 준말이라는 풀이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물고기 열 마리를'이다.
두름은 열 마리가 아니라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이르므로, 실제로는 스무 마리를 엮은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

③ O
트레바리는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함을 뜻하므로 풀이가 맞다.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뜻도 있지만, 제시된 풀이는 성격과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다.

④ O
지청구는 까닭 없이 남을 탓하고 원망함을 뜻하므로 풀이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열 마리'라는 일부만 기억하면 속기 쉽다. 두름은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이라는 묶음 단위이므로 총수량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유어 뜻풀이 문제에서는 막연한 분위기로 판단하지 않고, 수량어는 개수까지, 성격어는 행동 성향까지 정확히 대응시켜 본다. 특히 단위명사는 몇 개를 어떻게 묶는 말인지까지 확인하면 오답을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두름은 열 마리가 아니라 한 줄 열 마리씩 두 줄, 곧 스무 마리 묶음이다.

NoteBase

문 15.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② '-더라도'는 '-겠-'과 결합하지 못한다.

③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④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결과 절과 절을 잇는 연결어미의 제약을 주어 일치, 선어말어미 결합, 후행절 문장 종류의 측면에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결어미의 제약은 의미만이 아니라 문장 성분과 형태 결합까지 함께 본다.
'-(으)려고'는 의도·목적을 나타내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 것이 원칙이다.
'-더라도'는 양보를 나타내지만 선행절의 '-겠-'과는 잘 결합하지 못한다.
'-거든'은 어떤 조건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뒤 절에서 명령이나 권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으)ㄴ들'은 가정적 양보를 나타내며 뒤에 의문문이 오면 대체로 수사의문문으로 실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으)려고'는 보통 한 주체의 의도나 목적을 이어 주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자연스럽다.

② O
'-더라도'는 양보의 연결어미이지만 선행절에 추측·의지의 선어말어미 '-겠-'이 오면 결합이 제한된다. 제약 설명으로 적절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이다.
'-거든'은 조건이나 전제가 성립한 상황을 깔고 뒤 절에서 지시를 내리는 구성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있거든 바로 연락해라'처럼 명령문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올바르게는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와도 자연스럽다'이다.

④ O
'-(으)ㄴ들'은 가정적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실제 답을 묻는 진의문보다 수사의문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설명이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거든'을 단순 조건 표현으로만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이 어미는 뒤 절의 명령·권유와의 결합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편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끌려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어미 제약 문제는 먼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은지, 다음으로 '-겠-' 같은 선어말어미가 붙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후행절이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 중 무엇인지 순서대로 대입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으)려고'는 주어 일치, '-거든'은 뒤 명령 가능, '-더라도'는 '-겠-' 제약, '-(으)ㄴ들'의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의 넓이는 10홉, 남으로 외짝문 두 개 열렸다. 한낮의 해 쬐어, 밝고도 따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 갖추었다. 쇠코잠방이로 넉넉하니, 탁문군(卓文君)의 짝일세. 차 반 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 한가롭게 숨어 살며, 천지와 고금을 살핀다.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 말하면서, 누추하여 거처할 수 없다 하네. 내가 보기엔, 신선이 사는 곳이라,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하니, 누추하다 뉘 말하는가.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몸과 명예 모두 썩는 것, 집이야 쑥대로 엮은 거지만,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무슨 대수랴.

① 安分知足
② 艱難辛苦
③ 貧而無怨
④ 簞食瓢□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의 삶의 태도를 한자 성어의 뜻과 연결하는 문제로, 가난 속의 만족과 무원을 뜻하는 성어와 고난 자체를 뜻하는 성어를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안분지족: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태도이다.
빈이무원: 가난해도 남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이다.
단사표음: 소박한 음식과 물만으로도 도를 즐기며 사는 검소한 삶이다.
간난신고: 몹시 힘들고 고된 고생을 겪는 상태나 그 고생을 견디는 모습을 이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安分知足'은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다. 제시문은 방이 좁고 누추해도 밝고 따사롭고, 마음이 편안하니 누추함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어울린다.
② X: '艱難辛苦'는 어려움과 고생이 매우 심함, 또는 그 고생을 견디는 상황을 뜻한다. 제시문은 가난과 검소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기는 태도를 보일 뿐, 고난 자체의 극복이나 고생의 참음을 앞세우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고난과 고생을 견디는 태도'를 읽어 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가난해도 만족하고 원망하지 않는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③ O: '貧而無怨'은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누추해 거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글쓴이는 오히려 신선이 사는 곳이라 여기고 누추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므로 이 성어와 잘 맞는다.
④ O: '簞食瓢☒'은 대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처럼 매우 소박한 식사로도 만족하며 사는 검소한 삶을 뜻한다. 제시문에도 '차 반 사발 따르고, 향 한 대 피운다'처럼 소박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어려운 형편과 가까워 보여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②는 고생의 심함 자체에 초점이 있고, ③은 가난한 처지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초점이 있다. 이 제시문은 고난의 서사가 아니라 만족과 무원의 태도를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 문제는 먼저 제시문이 '어떤 형편'을 말하는지보다 '그 형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본다. 만족, 무원, 검소함이 중심이면 안분지족·빈이무원·단사표음 쪽이고, 고통과 시련의 극복이 중심이면 간난신고 쪽이다.

암기 포인트

간난신고는 고생의 심함, 안분지족·빈이무원·단사표음은 가난 속의 만족과 검소함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17. <보기>를 읽고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긴 뒤 그것을 종이로 찍어낸 소설책을 말한다. 주로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방각본 소설은 종이와 나무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고, 인구가 많아 독자의 수요가 많은 서울과 전주 지역에서 주로 간행되었다. 그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것을 경판본, 전주에서 간행된 것을 완판본이라고 부른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

① 한 작품 당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②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③ 이익 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민감했을 것이다.
④ 분량이 긴 작품은 품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방각본 소설의 제작 목적, 간행 지역, 판본 성격을 바탕으로 가능한 추론과 과도한 단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각본 소설은 민간이 이익을 얻기 위해 목판에 새겨 찍어 낸 상업적 소설책이다.
경판본은 서울에서 간행된 판본이고 완판본은 전주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간행지는 책을 만든 곳을 뜻할 뿐, 유통 범위를 그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O
한 작품이 서울에서는 경판본, 전주에서는 완판본으로 간행될 수 있으므로 같은 작품에 여러 판본이 생겼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제작된 지역에서만"이다.
지문은 방각본 소설이 서울과 전주에서 주로 간행되었다고만 했을 뿐, 그 책이 그 지역에서만 유통되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독자 수요를 고려한 상업 출판물이므로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을 수 있다" 또는 "제작 지역 외에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된다.

③ O
방각본 소설은 민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책이므로 이익을 남기려면 종이값, 목판 제작비, 인쇄 비용 같은 제작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④ O
방각본 소설은 작품을 나무판에 새겨 찍는 방식이므로 분량이 길어질수록 새겨야 할 목판 수와 종이 사용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품과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긴 작품일수록 제작 부담이 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간행지와 유통 범위를 같게 보는 함정을 만든 선지이다. 지문에 나온 사실은 "어디서 주로 만들었는가"인데, 이를 "어디에서만 팔렸는가"로 바꾸면 과도한 단정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없는 제한어인 "만", "오직", "반드시"가 선지에 붙으면 먼저 경계한다. 제시문이 생산지나 발생지만 말했으면 유통 범위나 예외 없음까지 곧바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방각본은 민간의 상업 출판물이고, 간행지 정보가 곧 유통 범위의 독점적 한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18.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 '지', 굳어진 부사 '관계없이', 지명 표기 '발리섬', 그리고 '듯도 하다'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관계없이'는 '상관없이'의 뜻으로 굳어진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지명 뒤의 '섬'은 '발리섬'처럼 붙여 적는다.
'듯'은 조사와 결합하면 '올 듯도 하다'처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먹은지'이다. '지'는 '어떤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먹은 지'로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바른 문장은 '밥을 먹은 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관계 없이'이다. '관계없이'는 하나의 부사로 굳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바른 문장은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발리 섬'이다. 지명 뒤의 '섬'은 붙여 적어 '발리섬'으로 쓴다. 따라서 바른 문장은 '이번 휴가에 발리섬으로 여행을 간다.'이다.
④ O: '올 듯도 하다'는 의존 명사 '듯' 뒤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문장 전체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듯하다'를 통째로 외우면 ④를 틀리기 쉽다. '듯하다'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문장처럼 조사 '도'가 끼면 '듯도 하다'로 띄어 쓴다. 또한 '먹은지'처럼 자주 붙여 쓰는 표현과 '관계 없이', '발리 섬'처럼 의미상 나뉘어 보이는 표현에 속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표현이 의존 명사인지, 이미 굳어진 한 단어인지 구별한다. 의존 명사 '지'는 앞말과 띄고, '듯'은 조사까지 끼면 띄어쓰기가 더 분명해진다. 반대로 '관계없이', '발리섬'처럼 사전에 굳어진 말은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먹은 지'는 띄고, '관계없이'와 '발리섬'은 붙고, '올 듯도 하다'는 조사 때문에 띈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②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③ 새 옷을 입어 보았다.

④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의 문법적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결 어미는 한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뒤의 용언이나 절과 이어 주는 문법 요소이다.
보조 동사는 본용언 뒤에서 가능, 시도, 반복 같은 뜻을 덧붙여 앞말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다.
①의 '들고'는 동작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 '-고'가 쓰인 것이고, ②의 '못하다', ③의 '보다', ④의 '대다'는 모두 앞말의 뜻을 덧붙이는 보조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의 '들고'는 앞의 동작과 뒤의 동작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 '-고'가 중심이다. '들다'와 '가다'가 이어진 구조이므로 보조 동사 구성이 아니라 나머지 셋과 기능이 다르다.

② X
'끝내지 못했다'의 '못하다'는 앞말의 동작이 실현되지 못함을 덧붙이는 보조 동사이다. 틀린 판단은 ②를 '다른 하나'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②는 ③·④와 같은 보조 동사 구성이다.

③ X
'입어 보았다'의 '보다'는 실제로 해 봄이나 시험 삼아 함의 뜻을 더하는 보조 동사이다. 틀린 판단은 ③을 '다른 하나'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③도 보조 동사에 해당한다.

④ X
'놀려 대곤 했다'의 '대다'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거나 되풀이함의 뜻을 더하는 보조 동사이다. 틀린 판단은 ④를 '다른 하나'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④ 역시 보조 동사 구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들고 가다'를 보고 뒤의 '가다'까지 보조 동사처럼 묶어 판단하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앞말의 뜻을 보충하느냐'와 '앞뒤 동작을 단순히 이어 주느냐'를 가르는 문제이므로, ①의 '-고'를 보조 용언으로 착각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 뒤의 요소가 가능, 시도, 반복 같은 추가 의미를 보태면 보조 동사이고, 두 동작이나 절을 이어 주기만 하면 연결 어미로 판단한다. 먼저 뒤 요소가 독립된 의미를 보태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는 연결, '못하다·보다·대다'는 보조 의미 추가라는 기준으로 구별한다.

NoteBase

문 20.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문이 필로티 건축 현상을 어떤 설명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특히 구조적 원인 분석과 인과적 설명의 특징을 읽어 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조적 원인 분석은 개별 현상을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제도·환경·정책 같은 배경 구조에서 파악하는 방식이다.
인과적 설명은 어떤 결과가 왜 생겼는지를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밝히는 방식이다.
유추는 비슷한 관계를 끌어와 이해를 돕는 방식이며, 그것만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필로티를 단순한 건축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기준, 대지 경계선 규정, 주택 공급 정책이 만든 결과로 본다.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다는 설명이 맞다.
② O: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와 '상부 건물은 …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라는 서술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는 진술이 맞다.
③ O: 제시문은 저렴 주택, 저렴 도시, 1970·80년대 주택 공급 정책, 공공이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 문제를 함께 거론한다. 필로티가 생겨나는 사회적 배경이 장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음을 환기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이다. 제시문은 세월호의 평형수 문제를 끌어와 필로티 선호의 배경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뿐, 필로티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유추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원인을 설명한다' 또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제시문에 유추적 표현이 들어 있다는 점만 보고 '해결 방안 제시'로 넘겨짚으면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글의 중심은 대안을 내놓는 데 있지 않고, 왜 이런 건축 형식이 생겼는지를 구조와 원인에서 해명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방식 문제는 먼저 글의 중심 기능이 원인 분석인지, 현상 비교인지, 대책 제시인지부터 가른다. 유추가 보이더라도 그것이 이해를 돕는 보조 장치인지, 실제 결론이나 해결책인지 따로 판단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원인과 배경을 밝히면 설명이고, 대안을 내놓아야 해결 방안 제시이다.

NoteBase